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발표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를 묻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요즘처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거의 매일 같이 등장하고 있고, 며칠 전 국내 한 대형 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객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중단조치까지 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회 전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부가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말 발표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등 개인정보를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했던 몇 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결과만을 놓고 봐도 이미 국민 4명 중 1명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집에 따라 유출피해를 입은 사용자들도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자기방어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유야무야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사용자에게나 사업자에게 모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겠죠. 여러모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보호라는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안'에서는 크게 통신·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감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보완,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대책으로 등장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그에 합당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웹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는 주민번호를 제한적으로 수집하게 하거나,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i*-PIN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저장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도 주문됐습니다. 포털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와 같은 개인정보 보유사업자는 주민번호, 계좌번호, 금융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의무

화시키는 한편, 개인정보 위험관리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하자는 내용이 그것이죠.

또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침해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절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위법성이 클 경우에는 벌칙부과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안에서는 통신·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사업자 스스로가 이런 강화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내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 보안 담당자도 “단기간 내에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자 모두가 지금보다는 향상된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비밀번호 바꾸고, 명의도용 여부도 확인해 보고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이용자의 2차 피해, 가령 웹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및 스팸메일 수신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외에도 추가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크레딧뱅크 <http://www.creditbank.co.kr>, 사이렌24 <http://www.siren24.com>, 마이 크레딧 <http://www.mycredit.co.kr>, 에이사이트 <http://asite.dreamwiz.com>) 등을 통해 사용자가 명의도용 여부를 즉각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웹 사이트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과 휴면계정 정리 캠페인들이 많은 웹 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발생 가능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KISA 내에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같은 일들은 한번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사업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최근 사고들에 대한 대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사용자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자의 자세, 그리고 훌륭한 사이버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용자의 지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S**